

일본 경상수지 전망 - 무역수지 적자에 이은 경상수지 적자는 언제?

- 일본은 2011년 31년 만에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
- 경상수지는 흑자를 유지하였으나, 2010년보다 43.9% 감소한 9조 6289엔으로 15년 만의 최저치를 기록함.
- 2015년 경에는 일본이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음.

따라서 일본의 매스컴에 소개된 경상수지 적자전망과 소득수지를 올리기 위한 방안에 대한 일본 전문가들의 의견을 소개하기로 함.

1. “2015년에는 경상수지 적자” vs “경상수지 걱정 없다”

[적자 전환 의견] - 간노 마사아키 JP모건증권 수석연구원

- 무역수지 적자 계속 전망
 - 엔고와 세계경기정체로, 수출이 큰 폭으로 늘어나기를 기대하는 건 무리.
 - 원자력 발전소의 조업도 저하를 보충하기 위한 화력발전에 필요한 액화천연가스(LNG)수입물량이 45% 증가율을 보이고 있고, 자원가격도 상승.
- 소득수지도 한계점 노출
 - 해외투자로부터 얻는 이자나 배당 등의 소득수지로 무역수지 적자를 커버중이나, 세계적인 저금리로 인해 소득수지 흑자도 한계점에 도달.

- 일본 해외투자의 평균적인 ‘투자대비 수익’은 미국 등에 비해서 낮은 수준. 기업의 해외전개에 따른 직접투자로부터 수익을 올리고 있는 미국과 달리, 일본은 채권투자 비율이 높고, 소득수지의 절반 이상이 이자수입인데, 세계적인 저금리의 영향을 받고 있음.

○ 2015년 경상수지 적자 예상

- 2015년 일본의 무역 적자는 14조3000억 엔까지 늘어나고, 소득수지 흑자는 14조8000억 엔에 그쳐 경상수지가 적자로 전환 예상됨.

[흑자 유지 의견] - 요시자키 다츠히코 소지츠종합연구소 부소장

○ 2012년 무역흑자 복귀 가능

- 일본무역회(www.jftc.or.jp)의 예상으로는 2012년도 무역수지는 4조엔 흑자도 돌아섬.
- 수송용기기, 일반기계, 전기기기 등 주력 수출 품목이 2012년 일제히 회복 예정. 일반 기계의 경우 5% 정도의 수출 증가가 예상되고, 그밖에 원자력 사태로 인해 2011년에 전년대비 10%가까이 수출이 저하된 바 있는 식료품 수출도 2012년에는 증가세로 돌아설 전망.

○ 2012년 경상수지 흑자도 16조엔으로, 2011년에 비해 확대될 전망

2. 소득수지를 늘리는 방안

○ 해외투자사업을 확대해야

- 일본 상사(商社)의 경우 과거 무역회사에서 지금은 투자회사로 변모하였음. 석탄, 철광석 등 자원·에너지를 중심으로 해외에서 투자 사업을 확대하였고, 최근 들어 성과가 나타나고 있음.

- 경상수지 흑자도 무역수지 흑자가 아닌 소득수지 흑자로 이루어 내는 추세로 가고 있음. ‘국가’라고 하는 지리적 구분에 집착하여 공동화 현상을 한탄할 것이 아니라 일본기업이 세계에서 어떻게 돈을 벌어들일 것인가를 생각해야 함.
- 엔고를 한탄만 하고 있으면 안 됨. 오히려 엔고를 활용하여 더욱 적극적으로 글로벌 전개를 해야 함.
- 경제활동의 지표도 GDP가 아닌 국민총소득(GNI)로 바꾸는 것도 바람직. GDP는 국내 생산에 주목한 지표이고, GNI는 일본국적을 갖는 사람과 기업의 소득에 주목한다. 일본의 경제정책 운영에 있어서도 GDP보다는 GNI를 중시해야 한다.
- 해외투자를 중요시하는 기업구조가 필요
 - 일본기업도 신흥국에 장기 근무한 사람이 톱에 오르는 경영체제가 필요.
 - 버블 붕괴 후의 장기적인 경제침체 속에서 생겨난, ‘리스크를 회피하고 현상을 유지하려고 하는 마인드’를 바꿔나가야 함.

□ 시사점

- 일본의 경상수지 적자 전환시기에 대해서는 기관별로 전망이 엇갈리고 있는데, 골드만 삭스는 7~8년뒤로, BNP파리바는 2020년대 초반으로 예상하고 있음.
- 전문가들은 일본의 경상수지가 조기에 적자로 돌아서는 경우, 일본국채의 신용 하락, 국채 금리 급등과 함께 일본 재정위기가 표면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음. 일본과 경제와 금융에서 연계성이 많은 우리로서는 일본의 경상수지 흑자 유지 정책, 재정 건전성 확보 움직임, 개별 기업들 위기극복 노력들을 면밀히 주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